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느 5:1-13)

## The Wisdom that solves a communal problem (Neh 5:1-13)

우리는 항상 잔잔한 시냇물과 푸른 초장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예기치 못한 문제들, 겹겹이 쌓인 고난들이 항상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할 때 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던 그 때에도 많은 문제들이 그를 덮쳤습니다. 나라에는 흉년이 들었고, 과도한 세금으로 백성들이 허덕였고, 부자들은 고리대금을 하며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박노철 목사

We always want to live and stay near a murmuring stream and in the middle of a green pasture. But we can never live our life like that. The unexpected problems and hardships that come in layers upon layers press down on us. It is the same when we do God's work. When Nehemiah rebuilt the wall of Jerusalem, so many problems fell on him. There were a famine in the nation; the people were hungry by the excessive tax; the rich practiced usury and tormented the people.

### 1. 깊은 시간을 가진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과도한 세금과 고리대금업자들로 인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분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의분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I pondered them in my mind"라고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감정이라면 깊은 생각은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깊이 생각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 1. Nehemiah who pondered in his mind

Nehemiah was very angry because of an excessive tax and being practitioners of usury. Jesus once was angry about Pharisees when he saw their hypocrisy. We also must have a sacred anger about sins. Through Christians' anger, God's new mission will stretch forth.

However, Nehemiah was not only angry about those things but he also pondered them in his mind. In the English Bible it is written, "I pondered them in my mind," which means that he meditated and thought a lot about them in his mind. If anger is feeling, pondering is logic. Jesus always asks us to ponder over something.

### 2. 죄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느헤미야

모든 고난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분명히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 만연한 죄, 곧 과도한 세금 징수와 고리대금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신앙으로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다시금 일깨워줬습니다.

우리도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대면하는 것은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 2. Nehemiah had courage to face sins

All suffering does not go through by sins, but you must not forget that suffering clearly comes from sins. Nehemiah concluded that all-pervading sin in Israel, that is to say, the collection of excessive tax and being practitioners of usury were done because they were not afraid of God. This was really a wise accessibility. Nehemiah was trying to solve the problem with his faith in God. He faith meant "How could we who are afraid of God do those things?" Nehemiah again brought them to their elitism.

We also need to know ourselves, how to face sins in us. And with a humble mind we must recognize and confess our sins. The fact that can we face our sins can only be done by a courageous man.

### 3. 모본을 보인 느헤미야

느헤미야 역시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총독으로 일하던 12년 동안 전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니다(5:14). 우리 시대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느헤미야를 신뢰할 만한 리더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감동시키고, 결심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 3. Nehemiah who showed an example

Nehemiah lent money to the people but he didn't receive any interest. Moreover, when he worked God's mission as a governor in Judah for twelve years, in order to avoid any misunderstanding, he had never received any salary(5:14). In our times, we too look long for a leader like Nehemiah.

Finally, they decided to obey Nehemiah's word. Presumably, they thought that Nehemiah was a reliable leader. Thus, Nehemiah saw that they were deeply moved and decided to obey him, and he let them swear in the name of God to their conviction. He clearly and effectively resolved all problems.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보았을 때 분노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대면하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 결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지혜로운 판단과 행함으로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My beloved Christians!

We must be angry and ponder in our mind when we see sins. And we face sins, confess, come to the Lord and must say Am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By having wisdom in judgment and action like Nehemiah,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us will be servants who should be used preciousy before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 2011 장로교의 날

## 7월10일(주일) 오후5시, 장충체육관

2011 장로교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5시부터 장충체육관(3호선 동대입구역 5번출구)에서 열린다. "변화를 주도하는 장로교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장로교의 날 행사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1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찬양, 2부는 장로교회의 개혁을 선언하는 개회식, 3부는 장로교 전통에 따른 예배, 그리고 4부는 향후 한국장로교 100년의 비전을 밝히는 한장총

선언으로 진행된다. 우리 교회 이종윤 원로 목사(직전대표회장)는 이날 2부 개회식에서 격려사를 한다.

온 성도는 장로교 연합과 일치로 선포하는 이 예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에서의 찬양예배는 계속 드러진다.



##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

### 7월17일(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

서울교회 장학회는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교회학교추천서/찬양대 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17일(주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특기자를 제외한 지난

학기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은혜 중에 계속되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를 주제로 2011 여름성경학교가 은혜중에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토)부터 시작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꾼이예요."를 주제로 계

속된다. 지치지 쉬운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힘을 얻는 수련회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새가족 환영회

### 7월16일(토) 오후4시30분, 801호

2011년 제2차 새가족환영회가 7월16일(토) 오후4시30분 801호에서 열린다. 초청 대상은 2011년 3월 19일 이후에 등록한 새가족과 그 이전 등록한 성도중에도 지난번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지 않은 새가족

이다. 참석자는 오후4시30분까지 801호에 모여 찬양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서울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하나 되고 잘 정착하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도한다.

## 주일 삼성로, 주차단속 강화

### 오늘부터 전인시작

우리 교회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은마아파트 앞과 교회 앞 삼성로에 주일예배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속유예를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의 무책임한 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오늘부터 강력히 주차단속을 하겠다는 공문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왔다. 공문에 의하면 버스정류장(뚝갈 전후 각 10m씩)에 교회에서 세운 주차금지 표지를 옮기고 주차, 비상등 켜고 이중으로 나

란히 주차, 아파트 진출로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여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 발생, 아파트 단지 안에 암체 주차 등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런 차량이 한 대라도 있을 시 모든 차량을 견인한다. 강남구민회관(대치역사거리 개포동 방향에 위치) 주차장을 주일에 배 시간에 주차를 허락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도 여러분은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윤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0]

#### (문 8) 창세기 2장에서는 1장과 다른 창조순서가 기록된 것이 아닌지요?

(답) : 창세기 2장에서는 1장과 같은 창조기사는 없습니다. 다만 1장의 창조 사역을 전제로 하고 완성시키는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처음 세 절에서는 1장의 논리적 결론으로 1장과 같은 용어와 스타일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된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창조의 상징으로 기념키 위해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날을 안식케 하셨습니다.

4절에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심으로 창조를 총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주제를 총괄적으로 표현한 후 이미 언급된 인간창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 모든 것을 준비 하셨습니다.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8)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나게 하시었습니다(9) 그리고 동산을 적시울 강의 물을 풍성케 하였고(10) 아담으로 하여금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감도 준비해 주셨습니다(15).

이처럼 창세기 2장에서는 1장에서 언급된 일반적 창조 기사와는 달리 사람 창조의 구체적 묘사가 기록된 것입니다. 거기엔 해 달 별 바다집승의 창조 얘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로 창세기 1장은 2장의 전제요 배경일 수는 있으나 같은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비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조기사를 읽다보면 이것이 더욱 확실해 집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준비라면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은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 · 달 · 별의 근원인 빛이 먼저 있게 하고 빛을 내는 해 · 달 · 별을 지으시고 새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궁장을 먼저 있게 하시고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며 가족과 짐승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풀과 채소 그리고 나무를 이것들보다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에 안식을 주심은 영원한 안식되는 천국을 위해 옛새동안 힘써 일할 것과 모든 피조물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된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 창세기 2장은 또 다른 창조기사가 아니고 1장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그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불어 넣어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하와와 아담의 관계 등을 말함으로 1장의 창조기사의 보충이며 대립된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단기선교팀 기도요청

#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 이강진 집사 (단기선교단장)

“방글라데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방글라데시는 99%가 이슬람과 힌두교로 철학의 권세아래 짓눌려 있는 국가입니다. 이슬람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임을 부인하고 죽지도 부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며 기독교도들과 이른바 성전(지하드)을 벌입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는 가슴에 꼭 품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할 영혼들이자 한편 선교단을 대적할 적그리스도의 불화살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는 노방전도가 금지된 곳이고 더구나 선교기간이 이슬람의 금식기간(라마단)이므로 선교팀의 활동에 사탄의 강력한 도전이 예상됩니다. 최빈국의 하나로 위생과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질병에 걸리거나, 국토 태반이 저지여서 홍수나 태풍피해를 당할 위험이 크기도 합니다. 또한 현지 조남혜 선교사님이 한국의 아들 진료문제로 고심하고, 박진영, 김미성 선



교사님이 비자 발급지연과 현지 자녀들의 언어 부적응으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쏟는 기도만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며 능력

은 수도 다카와 의료시설이 낙후된 목파가차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사역, 이미용사역과 어린이 교육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울부짖는 사자 앞에 선 선교팀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였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이 만지지도 못하리라!”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신 예수님! 선교단을 능력 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며, 우리 소망의 닷을 지성소 깊은 곳에 내리게 하옵소서.

선교팀의 파송주체인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선교팀이 철학의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의 횃불을 들고 함께 일한다는 일념으로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에게 뜨거운 사랑과 열렬한 기도를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있게 선교팀의 사명을 완수하고 선교사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선교팀은 갖가지 도전에 직면하여 서울교회 파송 선교사인 조남혜 선교사님과 따로 김동연 의료선교사님을 초빙하여 현지의 생생한 선교경험과 선교전략을 듣고, 또한 이전에 단기선교를 경험한 성도들의 경험담과 영상자료를 통해 배우면서 선교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원들 간에 마음 깊은 상처까지 털어놓는 뭉클한 교제를 통하여 혼연일체를 이루어 가고 있으며, 현지 선교사님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와 방글라데시의 복음화, 부정부패척결, 아동과 여성의 인권개선, 빈곤퇴치 등을 위한 기도 속에 단원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선교팀



2교구 소개

# 40자의 은사

## 최정환 집사 (2교구)

“살롬! 걷는 걸음마다 쉬는 쉽다 머무는 시선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금주 다락방은 000님 덕에서.. 주여 종들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소원의 향구에 이르게 하소서! 금요 기도회의 은혜 받기를 소망”



윗글은 요즘 제가 우리 다락방 가족들에게 보낸 메시지의 일부입니다. 우리 다락방(2-5, 6 청담동)은 연합 부부다락방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복규 장로님과 한명순 권사님, 군선교에 열심인 양득춘 집사님, 최혜인 권사님, 찬양의 은사를 받으신 이민희 집사님, 신순자 권사님, 권영월 권사님, 그리고 김기욱 집사님, 조인순 집사님, 김창남, 임미경 집사님, 성경필사의 위업을 달성한 아내 윤금자 집사 등 7가구 14명이 주력이지만 또 다른 가족들의 참여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다락방은 그간 각 가정을 순회방문하면서 성경공부와 교제를 나누었고 이민희 집

사님이 운영하는 안면도 예플수양관으로 수련회도 다녀왔습니다. 주어진 말씀 안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할 때 자신의 생각에 가감 없이 열변을 토하지만 장로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3가지가 넘지 않는 다과의 친교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헤어지기를 아쉬워하기 일쑤입니다. 요즘은 금요기도에 주력하느라 가정방문은 잘 못하지만 가끔 식사모임과 목에 좋다는 향산화 도반 육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맺어준 우리 다락방은 이제 한걸음 더 나가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선교사 후원이나 구제 등 새로운 사역에 동참하려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0자에 담아 보낼 성령의 은사, 그 생명의 샘물을 찾아 저는 오늘도 광야를 헤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날! 새살!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 하나님의 일꾼이예요

## 윤지현 성도 (사랑부 교사)

7월. 따가운 햇살과 장마가 이제 여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지 쉬운 계절입니다. 하지만 이 여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가 있어서 한결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2011년 여름, 사랑부가 7월 9일은 아가페타운에서, 7월 10일은 서울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예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립니다. 사랑부의 여름성경학교에서는 사랑부 선생님들이 준비한 물놀이, 공놀이와 같은 체험학습들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극 등을 통한 사랑부 선생님들의 성서화습도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한상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부 학생들은 물론, 사랑부의 선생님들도 함께 영적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부가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농어촌 100교회

## 김찬진 권사 (에스더전도회 회장)



춘천의 멋스러움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소리 없이 기다리는 꼬마친구들이 있어요. 춘천 동산교회의 20여명 어린이들이랍니다. 이 교회는 2011년도 서울교회 엘리야선교회(회장 김종철 집사)와 에스더전도회(회장 김찬진 권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입니다. 얼마 전에 사전답사 차 다녀왔는데 그 곳의 어린이들이 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도움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전도회에서는 지난 6월 29일

(수) 일일바자를 개최하였고, 지금은 더 많은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한 내용들은 경건한 예배와,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그리고 너무도 보고 싶은 인형극이며, 복음을 전하는 큐빅상자도 있습니다. 도우며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날은 방학하기 전 7월 16일(토)이예요.

그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문구류, 신간 창작동화집, 학습관련 자료집, 그리고 다양한 생활용품 등입니다. 우리의 꿈나무들이 주 안에서 더욱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과 몸으로 동참해 주세요.



중등부 여름 수련회

다음 세대 주역이 되는데는 공짜가 없습니다

정윤재 (중등부 회장)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사랑하시는 서울교회 중등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7월 25(일)일부터 7월 27(수)까지 아가페 다온에서 여름수련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번 수련회의 초점은 다음 세대의 주역인 저희 중등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리더들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 보고자 합니다. 또한 일상속에서 그리고 주변과의 관계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지녀야 할 신언서판(身言書判)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날에는 역경을 이겨내는 '래프팅' 체험, 박노철 목사님의 '말씀의 시간' 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둘째날에는 조별시간을 가져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한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이며, '천로역정' 코너 학습, 김성환 선생님과 함께하는 '찬양의 시간', 중등부를 지도하시는 박종민 목사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셋째날에는 외국인 선교사 요원인 '양화진'을 탐방하여 저희들의 앞선세대가 보여주시는 열정적인 섬김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기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 중등부는 학생들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아가페 동산에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질서와 협동정신을 배우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중등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주변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학생들을 이번 여름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나 중등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과 주변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학생들을 이번 여름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간성경공부함 변경안내

서적부 앞에 새로이 주간성경공부함이 설치되었다. 이에 기존 1층 우편함 옆 현관함에서는 더이상 주간성경공부 제출을 받지 않는다. 성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멀티미디어단 봉사자 모집

멀티미디어단(단장 오정수장로)에서 하반기 봉사 단원을 모집한다. 서울교회 홈페이지 콘텐츠 확보와 홍보 및 복음에 유익한 내용을 기획하고, 이를 리포트 및 영상형태의 뉴스를 제작하여 이를 교회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페이지관련 봉사자를 모집하여 더욱 향상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멀티미디어단 봉사자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전문 교육과정을 실시 하여 교회홍보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육성 하고자 한다. 특별히, 대학부, 청년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집분야: 기획, 리포트, 작가, 영상촬영, 편집, 사진 촬영, 홈페이지 관리

복음성가 가사 모집

찬양위원회에서는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사용할 복음성가집을 편집 하고 있다.이 기회에 성도님들이 직접 쓰신 복음성가 가사를 가지고 작곡하고자 하여은혜로운 가사를 모집 중이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보낼곳: jsp2016@hanmail.net(박정선 장로)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0일(주) 제3회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격려사를 한다. 14일(목) 군선교연합회 임시이사회, 대한민국 군인교회 총람집 출판기념 감사예배에서 기념사를 한다. 15일(금) 한국 기독교학술원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 수상: 3교구 이승현 성도(이근홍 집사 황현숙 성도 아들) 코리아 국제 발레 콩쿨 은상

■ 전시회: 14교구 손경화 집사 사진그룹 '포토아트' 회원전 7.6(수)~12(화) 인사동 라메즈갤러리

■ 이사: 유문건 목사, 김만성 목사 송파구 오금동 134-29 미소아파트 402호

■ 교역자 휴가: 7.12~19 (주일 제외) 정수길 목사 (대행: 서명철 목사), 장석남 목사 (대행: 박종민 목사)

■ 주간식당봉사: 모세전도회(7.10) 이삭전도회(7.17)

■ 금주의 식사: 2교구 고훈순 권사 가족일동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장로교의 날 예배를 통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며 일교단단체제의 비전이 이뤄지도록
2.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사역이 잘 준비되어 복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수 있도록
3. 7월과 8월에 계속 되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각 부서의 하나됨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민에게 전도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이의 발이여!

정수길 목사(7, 8교구 지도)

토마스 목사의 순교의 피가 뿌려진 대동강 물을 마시면서 살던 수많은 평양성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평양은 한국교회의 중심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고귀한 순교의 피를 뿌린 토마스 목사와 같은 많은 선교사들을 통해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 김인수 교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중에서



이들에게조차 부드럽고 친절하게 복음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간 <순례자>를 정성스레 문틈에 꽂아두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은혜 많이 받으시라는 덕담을 잊지 않았습니다. 팀장님의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있었는데, 방문하는 가정들에 대한 참고사항이 빼곡히 적혀있었습니다. 불과 한 시간 만에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며 빌라 9개 동, 50 여 가정을 순식간에 다 돌았습니다. 이마에는 붉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축호전도대는 방학이 없느냐는 다소 엉뚱한 질문에 '전도대는 방학이 없다'는 대답에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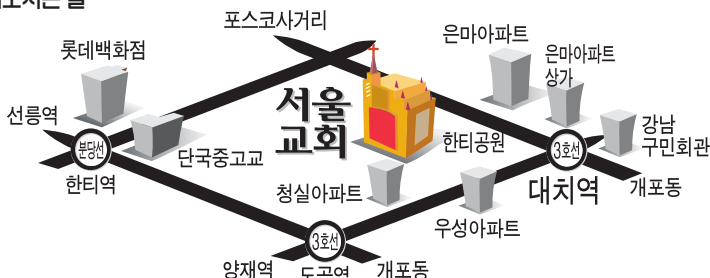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70인전도대의 축호전도현장은 또 다른 순교의 현장이었습니다. 서울교회의 70인전도대 축호전도팀의 복음을 전하는 발은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가봅니다(사 52:7).

지난 화요일(6월 28일) 오전에 70인전도대의 화요 축호전도팀의 축호전도현장을 참관하였습니다. 장석남 목사님의 인도로 찬양과 도고가 이어진 후에 하영수 장로님을 중심으로 전도대원 전원이 손에 손을 맞잡고 파송의 노래를 부른 다음 간절한 마음으로 파송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최정예 축호전도팀들은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저마다 맡은 전도의 현장으로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따라 나선 팀은 이유희·김정제 집사님 팀이었으며 담당지역은 대치4동 빌라촌이었습니다. 낮 시간이라서 빈 집들이 많았는데, 어찌다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면 전도팀은 온 얼굴에 기쁨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문틈으로 교회를 소개하고 정중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냉정하게 외면하는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요일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일기도회 | 오후 8시20분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